

혈액 투석 요법중인 당뇨병증 신증 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에서 성공적인 제왕절개 출산 1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장내과

김영일, 김수지, 석수진, 길효욱, 양종오, 이은영, 홍세용

A Case of Successfulregnancy and Birth in a Patient with Severe Diabetic NephropathyY

Young Il Kim, Su-ji Kim, Sujin Seok, Hyo-Wook Gil
Jong-Oh Yang, Eun-Young Lee, Sae-Yong Ho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가임 연령의 만성 신부전 여성 환자에서는 월경 및 배란장애, 성욕 감퇴등이 병발 되며, 투석 으로 치료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임신 기간이 평균 33주로 짧고 신생아 체중도 평균 1.8 kg 정도로 낮으며, 요독증에 의한 양수과다증등의 여러 합병증으로 임신 중 태아 사망도 많다. 1973년 Ulzelman 등은 4년간 혈액 투석을 받아온 26세 산모가 1570 g의 건강한 여아를 분만 한 증례를 보고하였고, 1992년 Souqiyyeh 등은 혈액 투석을 받는 907명의 여성 환자 중 27명이 임신하여 이 중 8명이 성공적으로 출산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이식 환자와 혈액 투석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가 성공적으로 출산한 보고가 있다.

또한 임신 중의 당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률이 3-5%로 임신 중 발생하는 내과적 합병증 중 가장 흔한 질환이나 진단과 관리의 발전으로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특히 임신 중 당뇨에 의한 모성 사망률은 1922년 인슐린이 사용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태아의 주산기 사망률은 정상 임신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며 1형 당뇨와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출산한 증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임신 한 말기 신부전 환자의 혈액 투석을 주 5회로 늘리고 엄격한 혈압조절 및 혈당 조절을 함으로써 임신3주에 1250 g의 건강한 여아를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Key Words: 당뇨병성 신증,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

Diabetic nephropathy, Successful pregnancy and birth